

 숨은그림찾기 <81>


(찾아보세요) 송사리, 양주잔, 우산, 열대어, 고추, 길매기, 접시, 팽이, A자

보신탕 집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는 남자 여섯명이 무더운 복날 기가 막히게 보신탕을 잘한다는 집을 끔을 뻘뻘 흘리며 찾았다.

모두들 평상에 앉아서 땀을 훌치며 신나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주문 받는 아줌마가 와서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전부다 개조?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네에~”



지난주 정답

펜촉, 비늘, 음표, 서틀록, 둘리 얼굴, 열대어, 사람 옆 얼굴, 고추, 접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배성민(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험성숙(화순군 화순읍)

아하! 오늘의 바로 그날

7월 16일 차범근 독일 진출...‘차붐신화’ 창조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축구 스타 차범근의 서독 진출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차범근 선수는 서독 축구계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지난 1978년 12월 25일, 단신으로 건너가 30분간의 공개 트레이닝을 가진 뒤 서독 프로팀인 'SV 다클슈티트 98'팀과 6개월간의 임단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계약 조건은 6개월간 계임당 500마르크(당시 환율로 13만원)와 그의 임단을 주선한 스포츠용품회사에서 제공하는 4천마르크 상당의 숙식비 정도. 승리 경기에 1천 마르크, 무승부경기에 500마르크의 특별 수당도 가산됐다.

이후 4일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그해 12월 30일 VFL 보훔과의 경기에 레프트 윙으로 첫 출전, 2개의 골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당시 서독 언론은 ‘차붐(Tscha Bum)’ 등의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기쁨도 잠시였다. 여권 연장 및 병역 문제 등으로 일시 귀국한 차범근에 대해 공군 현역병인 당시 신분을 감안, 정부는 5월 30일까지 잔여 복무를 마치지 않는 한 재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그는 79년 5월까지 잔여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서독으로 향했고 7월 16일 ‘아인트리하트 프랑크푸르트’팀과 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차붐’ 신화의 시작은 이때부터다. 당시 계약 조건은 2년간 연봉 24만 마르크(당시 환율로 6천 300만원), 관중이 많으면 특별 수당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는 이후 8월 11일 분데스리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데뷔했다. 처음 골을 맞은 것은 8월 29일 3번째 경기에 출전해서다. 그리고 세 경기 연속 득점했다. 당시 라우시 프랑크푸르트 감독은 “나는 10분간의 테스트로 그를 스카우트했다. 그는 유럽을 통틀어 최우수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극찬했다. 그는 입단



차범근 선수(사진 왼쪽)가 프랑크푸르트팀 유니폼을 입고 주인인 유르겐 그라보스키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첫 해 12골을 터뜨리며 ‘갈색 폭격기’로 자리잡았다.

차범근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당시 국민들에게는 분데스리가 경기가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현재 박지성·이영표·설기현 등이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 만큼 대단했다. 특히 당시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때에 차범근 출전 경기가 있었던 다음 날이면 차범근의 득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하니의 일과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8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진가를 더했고 ‘한국산 호랑이’, ‘갈색 폭격기’ 등의 별명을 들으며 그라운드를 누비다 10년간의 선수 생활을 끝마쳤다. 그의 10년간 서독 기록은 308개임 출장, 98득점. 외국인 선수로 최고 성적이었다.

그가 서독에서 일으켰던 ‘차붐’ 선종, 한국 축구계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것. 축구팬들의 바람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신탕 집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는 남자 여섯명이 무더운 복날 기가 막히게 보신탕을 잘한다는 집을 끔을 뻘뻘 흘리며 찾았다.

모두들 평상에 앉아서 땀을 훌치며 신나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주문 받는 아줌마가 와서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전부다 개조?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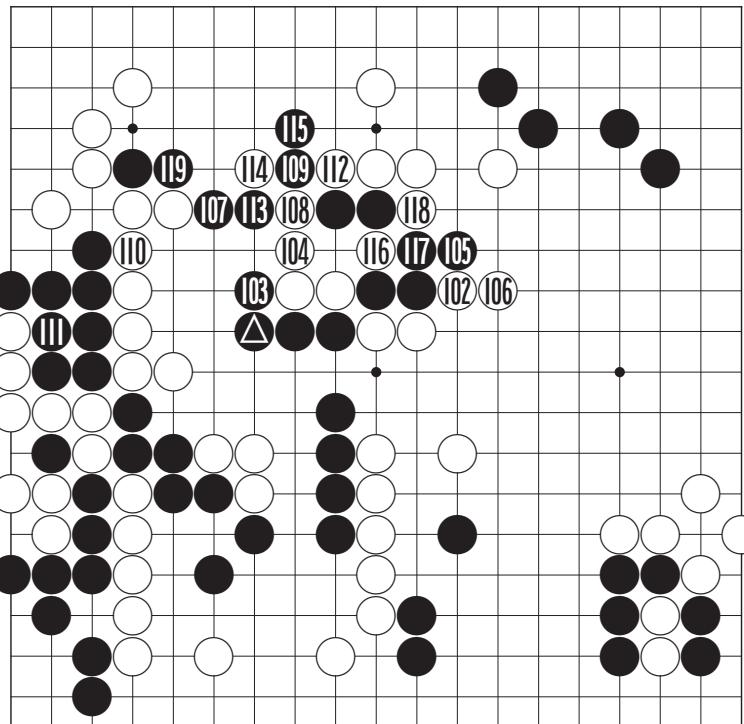
지난주 정답

펜촉, 비늘, 음표, 서틀록, 둘리 얼굴, 열대어, 사람 옆 얼굴, 고추, 접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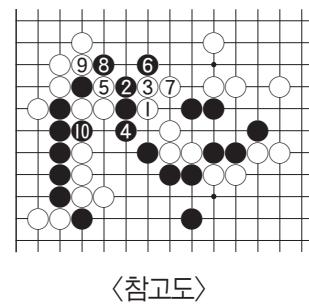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배성민(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험성숙(화순군 화순읍)

제16회 강의원
직장대행 단체 3회전

을가미에 걸린 백 대마 6보(102~119)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김광식 5단이 흑 ▲로 강력히 반발한 장면이다. 이 수로는 102에 늘면 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5단이 이렇게 초강수를 들고나온 이유가 다음 수순에서 밝혀진다.

흑 103이 통렬한 두점머리였다. 그런 다음 107이 준비된 연타로 백이

꼼짝없이 을가미에 걸려 들었다. 백 108은 어쩔 수 없는 수. 이 수로 ‘참고도’의 백 1로 불여봐도 흑 2부터 10까지 손해만 키울 뿐이다.

흑 109가 또 준비된 조임수로 김광식 5단의 연타가 화려하게 자랄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113의 조임수는 절대 선수이며 이 수로 인해 119로 막아 백 대마를 생포하는 수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중앙 백 대마를 크고 깨끗하게 잡혀서는 흑의 승리가 확실 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KYOBOKOBEST

바둑소식

진동규, 신예10걸전 2연승

진동규 3단이 10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걸전 A조리그에서 윤혁 5단을 107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리그 2승째를 올렸다.

2연패 뒤 2연승을 거둔 진동규 3단은 선두그룹으로 도약하려는 윤혁 5단(2승 1패)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리그 전을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몰고 갔다.

A조에서는 박승화 3단이 3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허영호 5단이 2승 1패, 윤혁 5단, 진동규 3단이 2승 2패로 그 뒤를 쫓고 있다. B조에서는 배준희 3단이 2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김수용 3단이 2승 1패로 주격전을 벌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72. 평창이 ‘철의 정막’ 크렘린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창은 지난 5일(한국시간)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19차 총회 2014년 개최지 결정 2차투표에서 러시아의 소치에 47·5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4년 전 체코 프리퍄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역전패를 당해 2회 연속 행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①동계올림픽

②동계유니버시아드

③월드컵축구

④동계아시안게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1일(음 5월 27일 토)

子 36년생 괜자가 물러나니 잘 살펴서 행동하라. 48년생 지출도 두 자로 생각하라. 60년생 새 생활이 시작 된다. 72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4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7,40

丑 37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니 준비가 부족하면 해사로다. 49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61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3년생 글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85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3,25

寅 38년생 좋은 일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0년생 일상일들이 나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다. 62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나주는 것을 좋지 않다. 74년생 부모에게 효도를 중요하니 부모에게 헌신하라. 행운의 숫자 : 05,38

卯 39년생 공짜 술에 병이 나니 괜찮아지마라. 51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3년생 뜻하지 않은 부모사례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75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 않은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30

辰 40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52년생 무총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라. 64년생 자기자랑보다 행동을 칭찬하라. 76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친구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1,37

巳 41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3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반사가 된다. 65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 77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 행운의 숫자 : 14,36

午 42년생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4년생 충화기가 발동하면 맘신수는 발생한다. 66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옥심을 버려라. 78년생 기상천외한 황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큼지 않다. 행운의 숫자 : 12,36

未 43년생 본인의 뜻을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마라. 55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67년생 흥분은 물들이나 생각하고 행하라. 79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33

申 44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작우를 살펴 가라. 68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렵다. 80년생 대단히 불리해지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9,34

酉 45년생 주변의 변화로 순서대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리하라. 57년생 새로운 변화로 제물로 생길 수도 있다. 69년생 자신의 건강도 살펴보라. 81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면 할 일이 대산 같다. 행운의 숫자 : 06,29

戌 46년생 불이익이면 시비에 휘말린다. 58년생 재물과 체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라. 70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82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33

亥 47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대화가 필요하다. 59년생 협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71년생 흥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83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를 까지도 조심해라. 행운의 숫자 : 11,40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45>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A : I suggest we get more data on this.
B : Frankly speaking, I don't agree.

A : You mean, it'll take up too much time?
B : Yes, that's right.

A : Well, I don't know about that.

A : 저는 우리가 이 방면에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볼 것을 건의합니다.

B : 솔직히 말해서,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A : 그 말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B : 네, 그렇습니다.

A : 음,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Frankly speaking = To be frank with you

* take up : 시간을 낭비하다

* data : n. pl. 자료

* frankly : adv. 솔직히

* 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Please give your honest opinion on this.

오하요우 니혼고 <945>

갓 지은 밥과 된장국이에요.